

2024
JUNE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

266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Open Doors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 마태복음 16장 18절 -

놀라운 믿음

- 소망이 있습니다
- 오늘,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 아프가니스탄의 힐라 이야기
- 아프가니스탄의 디나 이야기

박해와 선교현장

- 아프가니스탄

북한선교현장

- 이끄심:
- 시작은 어머니로부터(4)

Heart To Heart

- 삶의 재건, 희망의 회복 프로젝트
- 한국오픈도어 2024년 월도와치리스트 기도 자료
 - 기독교 박해지도 및 50일 기도책자
 - 어린이 기독교 박해지도 및 기도여권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4년 6월호 | 통권 266호 |
등록번호-중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지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황자경, 임훈희, 박인영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이정현,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셋별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

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차

03 놀라운 믿음

- 소망이 있습니다
- 오늘,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08 은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 아프가니스탄의 힐라 이야기
- 아프가니스탄의 디나 이야기

11 박해와 선교현장 - 아프가니스탄

19 북한선교현장 -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4)

21 Heart To Heart

- 삶의 재건, 희망의 회복 프로젝트
- 한국오픈도어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기도 자료
 - 기독교 박해지도 및 50일 기도책자
 - 어린이 기독교 박해지도 및 기도여권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놀라운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역을 끝내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인도, 락스만 목사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면 두렵습니다.
저희는 은밀히 예배드립니다."

인도, 나렌드란과 카비타

"저는 여러분의
격려를 통해 다른 이들을
격려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 아자이

"저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인도, 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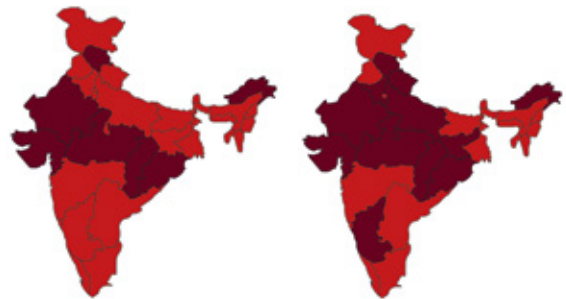
인도의 박해 상황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인도 국민이 힌두교도여야 한다고 믿는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적대감이 촉진됩니다. 힌두교 밖의 모든 신앙은 달갑지 않게 여겨 집니다. 점점 더 많은 주에서는 힌두교에서 강제로 개종하는 것을 막는 반개종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들은 기독교인들이 위협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인도 내 반개종법을 시행하는 주

■ 반개종법을 시행하는 주



1967-2014년

2014년 이래



‘소망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공격 이후에 입원하게 된
나렌드란과 카비타에게는 단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입니다

**나렌드란*과 카비타*는 인도에 있는 마을로
먼저 이주했을 때 사역을 시작할 마음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새집에서 일어난 일은 상처를
남겼고 -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많이 돌보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렌드란은 힌두교 가정 출신이지만,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사역에 그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카비타와 결혼하고 나서 그들이 있던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사역을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나렌드란이 기억하길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부부는 작은 땅을 살 만큼의 돈을 모았고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나무 창고를 지었습니다.

머지않아 교회의 성도 수는 40명이 되며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10년 이상 동안 계속 되었고 -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음의 소망을 증언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나렌드란과 카비타의 굳건한 믿음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날 밤, 나렌드란과 카비타는 몇몇 다른 기독교인들과 모여 기도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비타가 기억하길, “기도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바깥에서 어린 소년들이 교회 문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확인하러 즉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년들 중 두 명은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나요? 여기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모임을 끝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저희는 기도모임을 마치고 그곳을 떠났지만, 그 소년들은 계속해서 폭언을 하며 저희를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소리치며 남편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

있던 성도들은 전부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나렌드란은 그 다음 일어난 일을 기억하며 암울해 했습니다. “그들은 제 눈을 주먹으로 치고, 옷을 찢고, 그리고 저를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그들은 제 아내도 구타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공격자들은 자신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부부를 해치는데 성공한 것을 보고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나렌드란과 카비타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극단주의자들은 비어 있는 교회 건물을 기회로 삼고 안에 있는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기도와 실제적인 원조를 통해 저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들은 전세계 오픈도어 후원자들을 통해 파트너들은 부상 당한 부부에게 다가가 기도해주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살 형편이 되지 않는 이 부부 가정에게 식료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을 통해 파트너들은 나렌드란과 카비타에게 재봉틀을 제공해 그들의 생계를 지원할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카비타가 말하기를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저희에게 기도와 실제적인 원조를 지원해주었고, 저희는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려 오지 않았다면, 저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일 이후에 성도들 절반이 교회에 나오기를 멈췄는데, 극단주의자들이 그들의 집으로 찾아가 예배하러 계속 모이면 비참한 결과를 맞게될거라며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계속 모이고 있지만, 그들은 조용히 찬양 드리며 공격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계속되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나렌드란과 카비타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며 아무것도 그들을 부르심에서 떼어놓지 못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같은 마을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인도 내 파트너들을 통해 사역하며 성경 배부, 긴급 원조, 제자훈련, 등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나렌드란과 카비타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물은 이 사역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락스만 목사를 지지해주시고 인도의
박해 받는 교회들의 놀라운 믿음을
지지해주세요.**

사랑하는 동역자님,

지금 인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면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믿기 힘든 설명들을 듣고 있으며 여러분과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기적과 도전적인 믿음,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사실은: 여러분께서 하실 필수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락스만 목사와 같은 기독교인을 지지하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극심하게 아팠던 락스만의 아내가 기도를 통해 치유되어 그의 마음을 울리며 락스만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서 수백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상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이어야 한다고 믿으며 기독교를 위협으로 봅니다. 그들의 이념은 인도에서 호응을 얻는 것이며 - 극단주의자들은 더욱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락스만이 섬기는 교회의 한 성도가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압박을 받았다는 거짓 자백에 서명하도록 속임을 당했습니다. 락스만 목사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이 교회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저희는 모이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 락스만 목사

락스만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억하기를, “경찰관 여섯, 일곱 명이 저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구타하고 제 먹살을 잡고 경찰봉으로 쳤습니다. 저를 고문하고 조롱했습니다”.

락스만은 감옥에서 6일을 보내고 돌아가자 교회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파괴되어 무너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도들도 만나기가 몹시 두려워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자 락스만 목사는 수입도 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는 커녕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인도의 믿음과 교회 성장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서 하실 필수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 닫혔지만 저의 사역
은 계속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끝내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 락스만 목사



락스만은 여러분과 같은 분들 덕분에 비상 식량을 제공 받았습니다. 그는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작은 농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락스만은 홀로 있지 않았고 계속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건물을 부수고 저희를 감옥에 보내고, 구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를 예수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닫혔지만 저의 사역은 계속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끝내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락스만 목사의 도전적인 믿음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경찰의 단속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밀리에 다른 성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락스만이 한 말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실 저는 인도 교회의 미래가 염려됩니다. 힌두교 민족주의는 증가하고 있고 박해는 확인되지 않은 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동료에 따르면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보살피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락스만 목사와 같은 성도들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 인도의 목사들은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필수적인 식량 원조, 박해 훈련, 상담, 그리고 소규모 사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는 박해 받는 교회의 놀라운 믿음을 지지하기에 필수적입니다.

오늘, 선물을 보내주시고 이 놀라운 이야기에 동참해주세요

- 50,000원 - 2명의 극심한 박해의 영향을 입은 인도 신자에게 비상 식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70,000원 - 20명의 신자들을 훈련하고 박해에 성경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 120,000원 - 1개의 박해 받은 공동체가 생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경제적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후원문의:

02-596-3171 / 010-7548-3171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카카오톡채널 상담

자동이체: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아시아
(신청 시 가입한마디에 '인도캠페인'을 기록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계좌입금:

아시아 / 우리은행 1005-901-884970 /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입금 시 입금자명에 '인도캠페인'을 기록해주세요)

여러분의 아량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물을 보내주시고 락스만 목사님과 다른 용감한 성도들과 함께 인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드림

추신. 락스만 목사 또는 인도 내 박해 받는 형제자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가셔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유튜브 채널에 락스만 목사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검색 후 친구추가



오픈도어_Open Doors
South Korea'

*지체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비상 식량 지원 꾸러미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교회들을 공격하면 신자들은 항급히 흩어지고 목사들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비상 식량 꾸러미를 제공하여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돕고 인도 교회의 놀라운 믿음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의 힐라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얻다

힐라는* 자라면서 종교에 열심인 가족을 통해 교육을 지원 받고 학교에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배우며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사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힐라가 살

아가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소녀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녀가 학교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힐라는 이슬람 교육에도 전념하고 학교에도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영리하고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같은 반 남학생의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젊은 여성들 처럼 힐라가 공부를 계속하는 것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1학년 때 약혼을 하고 18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그녀의 부모님 보다 훨씬 더 학업을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이 저의 학업을 반대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결국 부족 간의 논의를 통해 저는 특정 조건 하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 집에서 지내며 힘들었지만, 대학교 2학년 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성경을 알게 되었고 힐라는 성경 말씀이 그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정하지 않았던 그의 태도는 바뀌었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며 방송을 보고나서 저에게 성경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인도와 감화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찾고 물으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힐라와 남편은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제자훈련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러한 믿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독교인 것이 발각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힐라의 남편은 공부 자료를 얻기 위해 마을로 여행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희생되었다고 믿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의 지지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성경의 가르침은 저희 공동체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힐라는 함께하는 공동체 성도들로부터 받은 도움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함 없는 지지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특히 저희 마을은 중요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므로 위안과 기쁨을 발견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힐라는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도록 전 세계 형제자매들에게 요청합니다. “성도들이 생명력있게 성경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며, 안전을 지켜주시며, 아프가니스탄이 탄압적인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침체된 경제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오픈도어는 현지 파트너들을 통하여 기도와 격려, 그리고 생계 프로젝트를 통해 지하교회를 강화하고자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안 상 상징적인 명칭과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디나 이야기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헌신할 것입니다’

디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녀는 두 명의 형제들과 함께 “깨어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아직 어릴 때 아버지는 아프가니스탄 내전에서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 홀로 남겨져 가정을 부양했습니다. 디나의 어머니는 수입이 많지 않았지만, 교사로서 있으며 작은 집을 얻을 수 있었고 생존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디나는 매일 아침 현지 학교 근처에서 음식을 판매하며 살림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디나는 18세가 되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읽은 것과 남편의 행동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수인 남편이 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주면서 결혼은 저에게 기쁨과 도전 모두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남편의 변화를 목격하고 선한 여행자의 가르침을 통해 저는 기독교에 대해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믿음 안에서 성장했고 성경을 통해 발견한 소망을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눴는데, 이는 기독교인 것이 발각되거나, 하물며 신앙을 나눌 때 탈레반 및 종교적 개종을 가족, 부족,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여기는 아프가니스탄 사회 내 밀접하게 결합된 씨족 체제의 표적이 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위험한 행위입니다. “저희는 성도로서 제자 삼고 저희가 속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디나의 남편과 동료가 실종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그날로 부터 그녀의 믿음은 가장 힘든 시험에 직면하

게 되었습니다. 디나는 되돌아보면 그녀가 함께했던 성도들의 도움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을 비롯해 미래의 소망과 함께 세웠던 앞으로의 계획들을 잃은 악몽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체들이 돕고 나서며 저와 세 딸에게 재정적 도움과 식량 지원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도전들을 다룰 때 그들의 지지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디나는 남편과 함께 믿음의 성장을 하며 내린 뿌리가 이 시간들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좌절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강조하며 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 안에서 계속 헌신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아프가니스탄 곳곳에 닿는 그날을 갈망합니다.”

오픈도어 동역자님들에게 드리는 기도요청:

“아프가니스탄과 전세계 형제자매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 받고, 성도들이 더 많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며,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인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그리고 축복과 은혜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기를 함께 기도해주세요.”

오픈도어는 현지 파트너들을 통하여 기도와 격려, 그리고 생계 프로젝트를 통해 지하교회를 강화하고자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안 상 상징적인 명칭과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기독교 박해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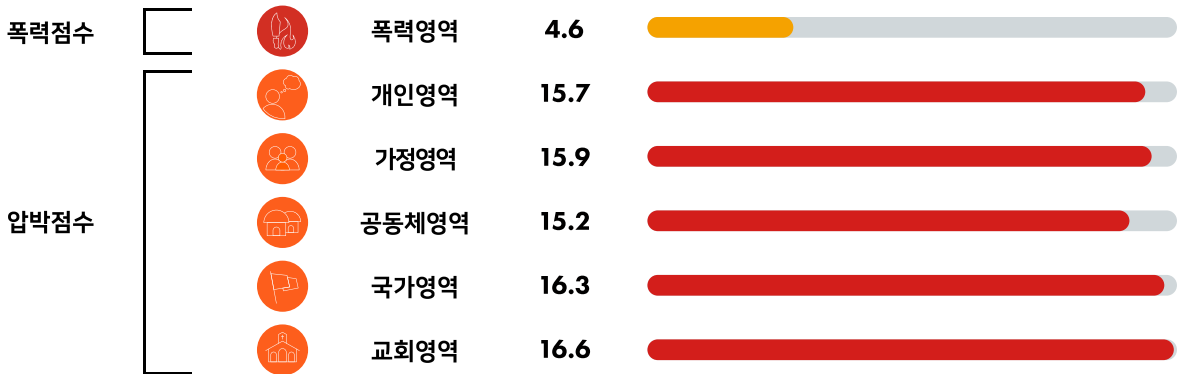
10 위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여섯 개 영역은 각각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 ($6 \times 16.7 = 100$).

중요한 발견

대부분 모든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들이며 그들은 공개적으로 신앙을 실천 할 수 없다. 이슬람교를 떠나는 것은 수치로 여겨지고 지배적인 이슬람법 하에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기독교 개종자들은 발각되면 나라에서 도망해야 한다. 가족, 씨족, 또는 부족은 “명예”를 지켜야 하고 알려져 있는 모든 개종자들을 상대해야 한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떠나고자 했고/했거나 숨었다. 정권 장악은 또 다시 집안에 갇혀 버린 기독교인들과 여성들의 상황을 악화시켰다.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국가 정보

지도자 : 하이바툴라 아쿱즈다 (탈레반 임시 정부)

인구 : 41,681,000 명

기독교인 수 : 수 천명 (오픈도어 추정)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레이트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비율
기독교인	수 천명	-

아프가니스탄은 40년 넘게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것은 사회 기반 시설, 경제, 그리고 사회 구조를 폐허로 만들고 이슬람 과격화, 범죄 활동, 그리고 부패가 널리 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대략 국가의 4분의 3을 지배했다. 2021년 8월, 탈레반은 다시 국가를 장악했고 소녀들에 대한 중등 교육을 금지하는 것 포함 이슬람에 대한 가혹한 해석을 재도입했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부유한 사람들도) 경제 붕괴의 결과에 시달렸다. 대부분의 인구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농부들로 하여금 아편과 같은 불법마약을 소득원으로 의존하도록 이끌었다.

한 탈레반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히 부인했다 (Voice of America, 2022년 3월 16일); 이것은 탈레반의 공식적인 관점이다. 나라 안의 소규모 기독교인 단체들은 나라 안에서 이동하거나, 보안 상의 이유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또는 숨어 있고자 할 것이다. 탈레반이 널리 도전 받지 않는 권력을

누리고 엄격한 형태의 이슬람 샤리아법을 시행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어떠한 공간도 기대할 수 없고, 그들은 여러 탈레반 파벌 그리고 이슬람국가 호라산에 대한 탈레반의 전투 사이에서 가능한 내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사회 개발 그리고/또는 여성, 소수집단 또는 인권에 관한 쟁점에서 일하는 압박 단체들은 국가의 정치발전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법규, 정치과정 또는 정부의 책임에 참여하는 집단들은 곧 국제사회의 간섭이며 서방의 의제를 넓힌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보통 '비신자'라는 낙인을 찍히기도 한다. 이는 소수의 기독교 단체들을 포함해 국가 내에서 일하는 서방의 비정부기구들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탈레반은 구 정부의 "협력자들" 및 "과격분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시민들에 대한 표적 살인을 자행했다 (Human Rights Watch, 2022년 7월 7일).

아프가니스탄의 국제적 고립은 계속된다.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되는 국제적 지원의 감소로 인해 몇몇 병원들은 문을 닫아야 했고 유엔은 끔찍한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두 번 중단시켜야 했다.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으로 시골 지역의 통제와 감독이 대부분의 도시들보다 더 엄격하다. 국가 전체가 엄격하게 이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곳곳에서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국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비정부기구(NGOs)들은 직원들을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려 보내기 시작했다. 적당히 개선된 보안으로 인해 국외 거주자들은 더 이상 고도로 단속된 구내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외 거주자들은 다른 기독교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본의 아니게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월드와치리스트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독교 개종자들

발각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발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월드와치리스트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해 및 차별의 주요 근원

독재정치와 혼합된 이슬람의 탄압:

아프가니스탄은 배교로 간주되고 가족과 공동체에 수치를 가져오는 기독교로의 개종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종자들은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 지방 당국들, 또는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폭력이 두려워 그들의 신앙을 숨긴다. 탈레반은 모스크 참석을 자주하도록 강력히 강조한다. 이슬람 국가와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 호라산) 관련된 단체들에 의한 극심한 폭력은 공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나는 결과를 낳았다.

민족 종교의 적대감과 혼합된 씨족의 탄압:

아프가니스탄 가족 단위의 집산주의적인 성질은 사생활에 대한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데, 이는 개종자들이 발각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하는 것은 국가의 우세한 이슬람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고 그 사람이 전통적 규범으로 돌아가도록 보장하기 위해 강한 압박이 가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추가적으로, 기독교는 특히 서방의 것이며 아프가니스탄의 문화, 사회, 그리고 이슬람에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국가 GDP의 80%는 비공식 부문에서 온다. 부패

와 범죄는 편재한다. 아편과 같은 불법 마약을 재배하는 것은 다른 어떤 농작물보다 수익성이 높다. 양귀비 재배로부터 얻는 소득은 무장한 과격분자 단체들과 부패에 자금을 댄다. 이는 특히 사회의 다수인 저소득층 출신의 경향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탈레반 장악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발전을 사실 상 중단시켰다. 여성들은 오랫동안 2등 시민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그들은 탈레반의 지배 하에서 부가적인 압박에 직면한다. 여성 권리의 하향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소녀들은 학교 출석이 제한되고 여성들은 일터에서 제외된다. 여성은 개종하면 비밀리에 지켜갈 것으로 예상되고 신체적 학대, 가택 연금, 강제 결혼, 그리고 강간의 위험을 무릅쓴다. 명예-수치 문화와 입법의 공정성 결여로 인해 여성 기독교인들은 학대를 보고할 것 같지 않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 (가택 연금)
- 인신매매
- 폭력 -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탈레반은 남성들로 하여금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고, 모스크에 참석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텍수염을 길러 그들이 가족의 좋은 무슬림 가장임을 보여주도록 압박한다. 기독교인 남성들은 개종을 하거나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보였다고 의심받는 것으로도 신앙을 이유로 조롱, 투옥, 고문, 성적 학대, 그리고 잠재적으로 죽음에 직면한다. 결혼한 경우에 개종자들은 아내 및 자녀들과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압박을 고려할 때, 기독교인 남성들, 특히 개종자들은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기로 선택하고, 일부는 직장에서 원치 않는 관심을 피하기 위해 낮은 자리를 선택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사회적 공동체/연결망 접근 제한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 - 살인 /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 언어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의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4	10	100
2023	9	84
2022	1	98
2021	2	94
2020	2	93

비록 방법들과 실행 자들은 달랐지만, 여러 해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북한과 똑같이 극심한 정도의 압박을 견디었다.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은 삶의 5개 영역 각각 최대 점수를 기록하며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탈레반의 정권 장악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고, 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전 문제로 국가 내에서 이주하거나 나라를 떠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가정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났으며 2022년 월드와치리스트 폭력 점수가 15점으로 전례 없는 수준까지 올랐다.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의 경우, 유사한 정도의 폭력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얻는 것이 여전히 불가능했다. 그 결과로 폭력 점수가 15.0점에서 4.6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아래의 폭력 관련 부분에 구체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것은 국가가 기독교인들에게 더 안전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두 번째 변화는 별도의 범주로 돌아온 국외 거주자 공동체이다 (위의 기독교 공동체들에 대한 설명을 참고할 것);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일부 질문들이 개종자들에 한정되어 압박 점수가 하락하도록 이끌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개종자들의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종합 점수는 여전히 극심하게 높다. (비록 탈레반이 정권을 쥐고 있기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더욱 조심하며 그들의 신앙을 감추겠지만) 이것은 국가 내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도망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교회 생활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가정교회들이 아예 모일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은 박해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 국가 전문가가 언급하기를: “교회의 성장을 추측할 방법은 없습니다. 평상시의 지수가 없어졌습니다. 지하교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박해에 대한 보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외부 전문가들은 기독교인 네트워크를 알아내기 위해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금되어 심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교회에 더욱 더 파괴적일 수 있음을 덧붙였다.

보고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보안 문제로 구체적인 상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인영역

유대가 긴밀한 부족 사회적인 사회는 사회통제가 심하고 개종자들은 발각될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레반이 (나라 전체를 장악하기도 전에) 그들이 통제하던 지역들에서 휴대전화 점검을 강요했을 때 많은 개종자들은 그들의 휴대전화를 없애고 숨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가정영역

이슬람교에서 개종했다는 의심 조차 체포 또는 가옥의 파괴와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독교인 배우자의 경우 이혼 또는 결혼을 무효화하는 것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다. 탈레반 정부가 자녀들을 무슬림으로 양육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배우자들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상실에 직면한다.

공동체영역

기독교 개종자들은 복장 규정을 따르고 모스크에 참석하거나 수염을 기르는 것처럼 무슬림인척 하는 것 이외에 선택권이 없다. 만약 기독교인 여성이 머리에 쓸 것을 착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그녀는 원하지 않는 주목을 끌어낼 것이고 지역 주민들은 그녀가 착용하도록 조종 하고자 할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 개종자들은 가능한 한 나라를 떠나고 있다.

국가영역

현재 탈레반에 의해 유보된 헌법은 타종교의 지지자들이 자유롭게 신앙 생활하는 것을 보장했다. 그러나 헌법 제3조는 어떠한 법도 이슬람의 교리를 위반할 수 없다고 명시해 많은 지역에서 제약을 가했다. 개종은 신성 모독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탈레반의 통치 아래에서도 사실인데, 정권이 샤리아법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탈레반 아래에서 기독교인으로 의심을 받는 모든 이들의 이동이 감시를 당하고 여행이 신앙 바탕의 이유로 행해지는 것으로 당국의 의심을 받으면 흔히 방해로 받는다. 탈레반은 잦은 수색을 자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교회영역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일하게 기능하는 예배당은 카불에 있는 이탈리아 대사관에 있고, 이는 도시에서 아직 일 하고 있는 소수의 국외 거주자들에게만 열려있다. 다른 기독교 모임들은 지하에 있고 비밀리에 열리는 데, 어쩌면 단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인 것처럼 보인다. 모든 기독교 관련 자료들은 숨겨져 있고 심지어 전자식으로 나누는 것도 추적이 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픈도어의 한 현장 전문가가 말하기를: “기독교 자료, 특히 성경을 소지하는 사람들은 가혹한 처벌,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해당 자료의 원천을 찾기 위한 조사로 이어질 것이다.”



©Alamy

국제적 의무 및 권리 위반

아프가니스탄은 다음 국제 조약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협약 (CAT)
4.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5.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아프가니스탄은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은 신앙을 혐의로 죽임을 당한다 (ICCPR 제6조)
- 여성 개종자들은 강제 결혼을 당하고 그들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당한다 (ICCPR 제23.3, CEDAW 제16조)
-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무슬림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들의 종교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종교적 이미지 또는 상징을 내보일 수 없다 (ICCPR 제18조, 제19조)
- 기독교 개종자들의 자녀들은 이슬람 종교의 계율을 충실히 지키고 이슬람의 가르침을 받도록 강요당한다 (ICCPR 제18조, CRC 제14조)



다른 소수 종교들의 상황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소수의 시크교, 힌두교, 그리고 바하이교 신자들은 거의 기독교인들 보다 자유가 없고 그들의 유일한 장점은 서양 및 이질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다.

미 국무부 IRFR 2022 아프가니스탄에 따르면: “시아파 하자라족과 다른 시아파 무슬림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었고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를 초래했다. 위협과 폭력의 가해자들이 이슬람국가 호라산, 현지 탈레반, 또는 둘의 연합인지 종종 불분명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 남은 유대인은 점차 나빠지는 안보 상황과 일상생활의 늘어나는 어려움으로 인해 카불을 떠나 이스라엘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Gandhara, 2021년 3월 29일).

오픈도어의 아프가니스탄 사역

오픈도어 파트너들과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위험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IMB

WEEKLY

Open Doors

한국오픈도어 모바일 주간 소식지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통해 매주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채널 추가하세요 +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북한선교현장

김서윤 전도사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4)

나는 그 긴 여정에서 많은 것을 듣고 보았다. 열차를 타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역전에서 온 가족이 쭈그려 앉아 잠을 청했다. 씻기 위해 돈을 주고 물을 사면서 참으로 세상이 삭막해졌구나 하고 느꼈다. 그리고 우리가 메고 있는 가방 속 내용물이 전부 간부들에게 먹일 뇌물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담배 몇 보루를 들이밀고 간신히 열차에 올라탔지만 기차는 좀처럼 출발하지 않았다. 당시 북한의 전기 사정은 너무나 열악하여 기차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했다. 출발하지 않는 기차에서 출발하기만을 간절히 빌었던 것이 여러 날이었다. 그런 와중에 먹고살기 위해 장사 길에 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 머리 위를 밟고 기차에 올라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에서 기차는 그야말로 아우성과 구타가 난무하는 생지옥을 방불케 하였다. 그렇게 더는 사람을 태울 수 없을 즈음에야 기차는 비로소 출발하였다.

미처 열차표를 구하지 못하고 뇌물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열차 지붕으로, 기차 밖에 계단으로, 혹은 간신히 창문에 매달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 허리를 펴다가 전기선에 치여서 죽는 사람 등 너무도 많은 사고가 발

생했다. 기차 안 민심도 그다지 좋지 못했다.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야 했고 그러다 보니 어둠 속에서 구타와 쌍욕이 오갔다. 우리는 열차가 큰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내려야 했다. 여관에 들어서 씻고 식사 한 끼 사 먹으려고 장마당으로 갔다. 기차에서 배고픔에 시달린 동생과 나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두부밥이 너무나 먹고 싶어 침을 꿀꺽꿀꺽 삼켰고, 그 모습을 보신 어머니께서 기꺼이 그 밥을 사 주셨다. 너무나 기쁜 그때, 두부밥을 파시는 아주머니께서 하신 "소매치기한테 조심하세요"라는 말에 "네?"라고 되묻는 사이, 그만 뒤에서 다가온 꽃제비 소년이 두부밥을 낚아채서 도망갔다. 신기할 정도로 빠만 앙상하게 남은 그 아이들은 도망가면서도 훔친 음식을 입에 쑤서 넣으며 달렸다. 두부밥 맛을 보기도 전에 꽃제비 소년에게 빼앗겼을 땐 너무 놀라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그러다가 소매치기가 도망간다는 소리를 들은 어떤 아저씨가 여동생의 두부밥을 낚아챈 꽃제비 소년의 뒷목을 잡고는 때려주었다. 그 아이가 장사꾼 사람들에게 구타당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던 우리는 울면서 때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며 장마당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렇게 맞는 와중에도 그 아이는 손에 묻은 밥알이 하나라도 더 있나 살피

며 손을 뻗었다. 그렇게 우리는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기차와 함께 길바닥 생활에도 점차 익숙해질 무렵에야 드디어 양강도 혜산시에 도착할 수 있었다. 어머니와 우리는 여관에 짐을 풀었다. 외지인으로서 괜한 의심을 받을까봐 어머니는 친척을 찾고 있다고 여관 주인에게 둘러대셨다. 그때까지도 나는 정말 친척 집에 가는 줄로만 알았다.

낮에 어머니를 따라 압록강 강변에 나가보니 아주머니들이 압록강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강가 주변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만 강가로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어렸기에 얼음길을 왔다 갔다하며 놀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소상히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쪽과 저쪽에서 빨래하는 아주머니들이 서로 담소를 나누며 빨래 사이에 몰래 무언가를 서로 건네주고 받는 것을 관찰했다. 중국 쪽에서는 대야에 비닐에 싼 돈뭉치와 설탕, 하얀 비누 등을 넣고 빨래로 덮어서 보내면 북한 쪽에서는 슬쩍 대야를 끌어다가 미리 준비한 구리, 사금 그리고 알 수 없는 물건을 싼 봉투 같은 것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실수로 물에 떠밀려 간 것처럼 보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들은 나에게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며 마치 나를 원래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기하였다. 그러고는 대충 빨래를 마무리하고 군인 아저씨들에게 그만 간다고 하면서 주머니에 돈과 담배 한 보루를 찢러 주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떴다. 나는 이 재밌는 광경을 어머니에게 신나서 조잘조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사뭇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

우리는 매일 밤 압록강으로 나갔다. 어머니께서는 곤히 자는 우리를 깨워서 조용히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는 아무 소리 않고 옷을 입고 엄마를 따라나섰다. 강가에서 우리는 숨죽이며 도강할 기회를 엿보았다. 영하 30도가 넘는 기온과 두 볼과 귀를 쏘는 듯한 칼바람이 우리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그렇게 눈 속에 몸을 찌구린 채로 밖을 살피고 북한 군인들이 지나가면 숨기를 반복하다 돌아오기가 여러 날이었다. 애들을 주렁주렁 달고 와서 친척 집에 간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머물러

있으니 여관 주인이 이상해하는 눈치였다. 어머니는 친척이 이사했는지 집 주소가 잘못되어서 알아보고 있다고 둘러대셨다. 우리도 정말 친척집 주소가 잘못되어서 그러시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왜 매일 밤 강변에서 모두의 눈을 피해 숨어서 강 건너편을 바라보는지도 통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어머니께서 뭔가 큰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만 짐작할 뿐이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우리는 강변에 잠복하였다. 총을 맨 군인들이 2인 1조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은 그 밤, 남동생은 춤과 줄리드며 칭얼거렸고 어머니는 그런 남동생을 달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탕탕" 총소리가 났다. "도강자다!!" 라는 외침과 함께 총을 쏘대는 소리가 들렸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총소리에 심장이 미친 듯이 쿵쥔거렸다.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 총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어떤 젊은 한 여성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가로지르며 험레벌떡 뛰고 돌아보지 않고 뛰고 있었다. 한동안 총소리가 이어지고는 군인들이 화를 내며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놓친 것이었다. 그 광경에 충격을 받은 우리는 여관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날의 충격을 목격하시고 좌절하셨다. 혼자 강을 건너는 것도 이렇게나 위험한데 애들 셋을 데리고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뜬눈으로 밤을 새운 우리는 아침 일찍 짐을 싸서 여관을 나와 북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우리 삼남매는 드디어 친척을 찾았나보다 하고 들뜬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나섰다. 그런데 어머니는 압록강 강변을 따라 동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셨고, 보천군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해서야 걸음을 멈추셨다. 어머니께서는 혜산에서의 도강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압록강 상류로, 더 깊은 산악지역으로 이동하셨던 것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그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로 마을 주민들도 얼마 없고 먹을 것도 넉넉지 않았다. 혜산에서는 장마당에 나가면 먹을 것이 많았고, 돈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걸 사먹을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몇날 며칠을 하루 두 알 감자만 먹었다. 너무 배가 고팠다.



Heart To Heart

삶의 재건, 희망의 회복 프로젝트

나이지리아 긴급구호: 삶의 재건, 희망의 회복 2024년 2월-2025년 1월(12개월)



**식량, 쉼터, 심리치료, 식수위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현물 분배 및 조건부 현금 제공
심리적 사회적 영적 지원**

2024년 오픈도어 WWL보고서에 따르면 신앙때문에
살해당한 전세계 기독교인의 약 82%(4,118명)가 나
이지리아에서 발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는 보
코하람, ISWAP(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 플라니
무장단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기독교 공동체
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습격, 살인, 납치, 성폭력,
그리고 생계 파괴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4
월17일-7월10일 기간에 플라토주에서 이슬람 무장
단체의 공격으로 인해 315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
었습니다. 또한 6,603가정이 폭력에 노출되었으며, 그
중 18,751명이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대부분이 기독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0-5세 사이의 고아들도
6,06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24
일 성탄절 전날에 기독교인이 거주하는 20개 마을이
플라니 무장단체의 공격을 받았는데, 113명이 살해되
고, 30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픈도어는 현장 상황의 긴급성을 인식하여 나이
지리아 플라토주와 베뉴에주 교회 성도들의 삶의 복구
와 희망의 회복을 돕기위하여 긴급구호 계획을 추진하
며, 기도와 더불어 후원을 요청합니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플라토주와 베뉴에주의 교회의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회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1단계 긴급대응(2023년12월-2024년 2월, 3
개월)과 2단계 지역사회 회복(2024년 2월-2025년
1월, 12개월)에 집중하게 되며, 한국교회의 참여를 요

청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특징은 초기 긴급 대응 단
계에서 조기 복구 및 자생력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정
서적 영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도와 성경전달도
함께 진행됩니다.

“ARISE AFRICA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그 긴박성을 알
리기 위하여 지역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교회의 상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교
회가 부흥할 수록 복음에 적대적인 세력들의 공격은 잔
악해 지고 있습니다. 무장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은
기독교인 마을을 공격하여, 무자비한 살인, 납치, 방화,
가산 몰수등 삶의 터전을 황폐화 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하라사
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된 곳은 나이지리아입니다. 지난해 전세계 살해된
기독교인의 80%가 나이지리아에서 발행한 것이 이것
을 증명합니다. 이에 오픈도어는 이러한 무자비한 폭
력적 박해에 맞서서 아프리카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희망하며, 전세계 교회와 더불어 기도와 물질로 참여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프리카여 일어나라 폭력적 박해에 맞서서... “ARISE
AFRICA 캠페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회는 한국오픈
도어선교회(02-596-3171)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 드림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901-884982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오픈도어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기도 자료

- 기독교 박해지도 및 50일 기도책자
- 어린이 기독교 박해지도 및 기도여권



자료 사용 방법

개인과 가정, 단체,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도자료들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50일 기도책자:

1. 50일 기도책자의 내용을 읽습니다. 한 명이 읽거나 함께 읽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큰 소리로 읽으면 좋습니다.
2. 기독교 박해지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해당되는 국가의 위치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50일 기도책자 뒤쪽에 있는 기도 체크 리스트 확인표를 작성하세요.
3. 해당 국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찾으신다면 한국 오픈도어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기독교 박해 - 월드 와치 리스트 - 맨 밑 '박해와 선교현장' 자료를 보시고 발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세요.
4. 기도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5.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여권:

1. 기도여권과 어린이 박해지도를 함께 준비해주세요. (인도자가 일반 기독교 박해지도를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2. 기도여권에서 해당 국가에 대해 큰소리로 읽어 보세요.

2024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기독교 박해지도(A2), 어린이 기독교 박해지도(A3), 50일 기도책자, 기도여권이 제작되었습니다!

개인과 가정, 단체, 그리고 교회가 전세계 박해 받는 지역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눕니다.

모든 자료는 한국오픈도어에서 (홈페이지 / 카카오톡 채널 / 문자 /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QR코드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 QR코드

3. 세계 박해 지도에서 국가를 찾으려면 국가의 모양이나 작은 기호를 찾아보세요.
4. 지도에 국가의 번호를 적으세요. (원한다면 색칠할 수도 있습니다.)
5. 기도여권을 사용하여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6. 지도의 빈칸에 방문한 날짜를 표시하세요.
7. 성경 암송구절을 암송한 후 확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8. 기도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9.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여권을 사용할 때 희망의 저금통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마다 이 저금통에 사랑의 헌금을 넣어주세요. 기도여권을 완주하고 나서 이 저금통에 담긴 헌금을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송금해주시면 전세계 박해 받는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50일 기도책자는 어른들이, 기도여권은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교회에서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사용해 보세요.

50일 기도책자와 기도여권을 통해 전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 / 휴대폰 / 메일 / 카카오톡채널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